



미국 샌안토니오 아트페이스에서 열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기획 'Our Step, Our Hope' 전.

ACC 오늘 중장기계획 발표 문화 교류 등 5대 방향 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한다.

ACC는 20일 오후 2시 ACC 예술극장 극장 1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동시대 아시아 문화 예술의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담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ACC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운영방향 설정에 방점을 찍고 문화·예술·기술의 교류와 융·복합을 통한 아시아 문화가치 확산이라는 중요 임무(미션)를 새롭게 수립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아시아 문화유산의 디지털 전환과 보급, ▲프로젝트 랩(Lab) 기능 강화 ▲고객 중심 서비스와 지속 가능 경영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등 5대 핵심추진 방향과 세부추진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토대로 ACC를 세계적 수준의 동시대 아시아 문화예술의 선도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이정기 '현재인:위기의 가능성' 30일까지 송정작은미술관

이정기 작가의 '현재인: 위기의 가능성' 전시가 송정작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광산아트플러스 54번째 전시다.

작가는 '우리의 모든 것은 미래에 유물로 남는다'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남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작품 속에 담아냈다.

작가는 녹스 철판에 총탄자국을 새겨 어린이(작가의 셋째 딸)의 모습을 영상화, 전쟁 살상의 피해자를 묘사하거나 식탁에 사람들의 얼굴 형상들을 채워 한 개인의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부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적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을 한 번쯤 돌아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 말대로 이번 전시는 포장하지 않고,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시대의 흐름을 담고자 하는 그의 '유물' 작업으로 채워진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전시가 될 전망이다.

전시는 30일까지 열리며 자세한 문의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3687)로 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샌안토니오에서 선보이는 광주 현대미술

광주-샌안토니오 자매도시 결연 40주년을 맞아 광주 작가들이 미국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샌안토니오 아트페이스(Artpace San Antonio)에서 열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기획 'Our Step, Our Hope(아워 스텝, 아워호프)' 전이다.

이번 전시는 광주와 샌안토니오의 지난 40년 교류와 우정의 발자국이 미래의 희망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광주의 학문적 사유와 예술적 전통, 그리고 광주 정신의 근간이 된 의로운 역사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해 소개하는데 초점을 둔 전시다.

1982년 광주와 자매도시가 된 샌안토니오는 미국 텍사스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 155만 명으로 텍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미국에서 일곱 번째로 큰 도시다. 공업도시이자 교통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따뜻한 기후와 스페인과 멕시코풍 건축물, 알라모 전투 유적, 도시를 관통하는 리버워크 등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하다.

자매도시 40주년 기념전 'Our Step, Our Hope'

황영성 등 10명 참여

내년 1월 1일까지 전시

이번 기념전은 샌안토니오시 아트페이스와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다. 아트페이스는 예술을 통해 지역과 세계의 예술 공동체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창조적 실험실을 목표로 1994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지역과 국내외 예술가 지원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전시를 제공하며, 학생과 시민, 예술가를 위한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작가로는 박이소(2000), 구정아(2003), 서도호(2006) 등이 아트페이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광주비엔날레 개최도시이자 유

네스코 미디어아트창의도시로서 예향의 전통과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포괄 할 수 있도록 회화에서부터 설치, 영상 등 뉴미디어아트까지 다양한 매체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를 대표하는 원로작가 황영성, 우제길을 비롯해, 중견작가 정선휘, 이이남, 임남진, 청년작가 이정기, 하루.K, 임유현, 조은솔, 설박 등 전 세대를 아우른 10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황소와 가족'을 주제로 작업해온 황영성은 모더니즘의 격자구성 속에 현대인들의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담아 시대성과 인류의 보편성을 현대적 조형어법으로 보여준다.

우제길은 빛의 색깔과 형상에 기반을 둔 추상 회화를 통해 빛의 온도와 촉감을 시각화하며, 빛의 상징성을 통해 한국의 모순된 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담아낸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은 광주화단의 뿌리인 작가 오지호와 허백련의 작품을 연결하고 움직임을 덧입혀 새로운 상상력을 부여하며, 예향 광주의 전통을 소개한다.

정선휘는 서남해안의 갯벌 풍경 속 노동하는 서민의 일상이나 고요한 산사의 풍경을 담아낸

회화와 특허출원한 LED 조명의 기술적 결합 통해 시간의 흐름과 서사를 더한 새로운 풍경을 제시한다. 임남진은 고려시대 감로탕화 형식을 차용한 현대적 풍속화를 통해 동시대인의 희로 애락을 담아내며, 이정기는 후대에 남겨질 유물로서 현대인의 자화상을 조각 설치 작품으로 선보인다.

전송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샌안토니오 루미나리아 축제에 2015년 이후 광주 작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샌안토니오 작가의 작품이 설치됐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샌안토니오 시민들이 광주와 만나고 광주를 기억하고 상상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양 도시의 우정과 교류의 촉매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샌안토니오 아트페이스 라일리 로빈슨(Riley Robinson) 관장은 "지난 40년간의 광주와 샌안토니오의 자매교류는 특히 문화적 교류에서 더 빛났으며 아트페이스가 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영광이다"고 강조했다. 전시는 2023년 1월 1일까지다. /이나라 기자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정기공연 '춘향 사랑이어라' 23~24일 무대

국립남도국악원은 23-24일 오후 5시에 국악연주단의 정기공연 '춘향, 사랑이어라'를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영원한 고전인 춘향가에서 춘향과 몽룡의 만남부터 춘향이 옥에 갇혀 부르는 '쑥대머리' 대목까지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됐다. 국악연주단의 다채로운 음악과 춤을 더해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펼쳐 보일 예정이라고

남도국악원은 설명했다. 공연은 서곡 '광한루의 봄'을 시작으로 '단오가', '부용당의 사랑', '오리정 이별' 순서로 진행된다.

남도국악원 명현 원장은 "춘향, 사랑이어라는 남도소리의 뿌리에 바탕을 두되 국악관현악과 창작무용을 입혀 선보이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정기공연 연습 중인 단원들

/남도국악원 제공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기업

현대로오텍(주)

현대이엔티(주)

생산 및 품질인증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고품질, 고효율, 유지보수**에 편리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임직원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생산품

수배전반(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

태양광EPC

태양광시공 및 분양, ESS, 전기공사, 유지보수

현대일렉트릭 특약점

비상발전기, 변압기, 모터, 차단기, 태양광PCS

변전소컨티공사

154/345kV S/S 공급 시공, 시스템설계, PM

■ 154kV 해남변전소

■ 태양광발전소-PV+ESS

■ 건물 지붕 태양광

■ 물드변압기

■ 배전반

■ 주변전실 배전반

대표이사 노정규
 C.P 010-3573-1323
 Homepage <http://rotech.kr>
 E-mail rotech@rotech.kr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 340 (연제동) 현대로오텍(주)
 TEL : (062) 972-4491 FAX : (062) 972-8863
 목포공장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불3길 14 (난전리) 현대이엔티(주)